

慧超『往五天竺國傳』小考

鄭基先*

• 目次 •

I. 서론

二. 研究心得

II. 본론

III. 결론

一. 研究史略

I. 서론

慧超往五天竺國傳은 앞뒤가 잘려나간 敦煌殘卷子이다. 발견된 지 거의 백년 동안 각 국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본적인 문제마저 확실히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한 실정이다. 五天竺國은 五印度라고도 하며, 東西南北中印度의 總稱이다. 이 卷子本에 의하면 慧超가 지나온 路程은 인도이외에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열 몇 개의 국가를 거쳤다. 그는 이 여러 나라들의 정치, 종교, 풍속, 토산, 문화 특색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였고 또 당시 통용되던 西域 각지방의 원래 지명을 기록하였다. 국명으로 犯引, 波斯, 大寔, 拂臨, 胡蜜 등 몇 십 개가 적혀있고, 그 외 王名, 寺名 등도 있다. 따라서 이 傳本은 敦煌學術上, 특히 佛教, 歷史, 地理, 言語, 風俗 방면에 연구 가치가 아주 큰 孤本이다.

筆者는 80년대 臺灣유학시절에 敦煌學계의 대 학자 潘重規교수님의 지도하에 臺北中央圖書館에서 마이크로필름을 통하여 역사상 稀貴 孤本인 慧超往五天竺國傳을 精讀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前輩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 중국문학박사

고 학습하던 과정에서 몇 가지 心得이 있었으나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拙稿에서는 먼저 p.3532卷子가 刪節本임을 〈一切經音義〉에 의거하여 확실히 증명하고, 中國에서 1994년 출판된 張毅선생의 〈往五天竺國傳箋釋〉의 간단한 校勘을 시도하였다. 근래 일본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寫錄本說' '草稿本說'에 대한 소견을 그때의 심득을 기초로 하여 적으며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또 1999년 2월 우리나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출판한 〈혜초스님 기념학술세미나 자료집〉을 읽고 국역부분의 異見을 원본모양을 유지하며 끝에 덧붙였다.

II. 본 론

一. 研究史略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은 닥나무지로 된 敦煌 寫本인데 앞뒤가 잘려 나간 채로 발견되었다.(이후 傳本으로 부름) 이 卷子는 세로로 쓰여진 227行을 읽을 수 있으며, 한 行에 약 27字에서 30字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프랑스 파리 국가도서관에 보관 중이며 編號는 'pelliot chinois Touen-houang 3532'號이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서명과 작자가 없어 이름도 몰랐으나 프랑스의 한학자 伯希和(P.Pelliot)가 慧琳(737~820)이 저작한 〈一切經音義〉卷一百에 있는 惠超往五天竺國傳¹⁾의 발음과 해석부분이 이 卷子와 몇 군데 부합하며 그 순서마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여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의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8년에 〈法國極東學校校刊〉에 연구보고를 발표하였다.²⁾

그 후 國際 學術界의 주의를 끌게 되어, 여러 나라 학자들이 세심하게 校勘. 整理하였고 英語. 獨語. 日語. 韓語로 번역도 하였다. 1909년 중국 羅振玉 선

1) 〈一切經音義〉의 目錄에서는 慧超라 하였고 책 속에서는 惠超라 하였으나 古籍에서 慧. 惠는 서로 通用 되었다.

2) P.Pelliot, BEFEO 8, 1908, p.511.

생은 〈敦煌石室遺書〉第一冊에 이 傳本을 넣어 편집하였고 ‘慧超往五天竺國傳校錄札記’를 지어 설명하기를 이 傳本은 慧琳의 〈一切經音義〉卷一百의 上·中·下 三卷 중 열 다섯 군데 음과 뜻의 해석이 傳本중의 어휘와 일치하고 순서도 같게 구성되어 있으나, 오직 中·下 부분만 볼 수 있으니 아마 원본은 三卷이었을 것이고 이 傳本은 三卷의 刪節本일 것이라는 단정을 내렸다.³⁾ 1911년 일본 학자 藤田豐八선생은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을 발표하여 〈大日本佛教全書〉卷一一三 遊方傳叢書에 收錄하였다. 또 ‘箋釋題記’에서 ‘…혜초는 불공의 입실제자로 당시 유명한 승려로 고찰된다.’하였다. 또 高南順次郎선생은 遊方傳叢書에 ‘慧超傳考’를 발표하였는데 唐代 密敎의 중요문헌인 〈表制集〉⁴⁾중 大曆九年五月七日 三藏和尚의 遺書를 인용하여 慧超는 新羅和尚이라는 새 학설을 발표하였다. 또 慧超는 “中國 密敎 初祖 金剛智三藏 門下에서 8년간 受法했으며(773~740), 명령을 받들어 ‘大乘瑜伽金剛性海曼珠室利千臂千鉢大敎王經’을 번역하였다. 建中元年(780) 四月十五日에서 五月五日間에 慧超는 五臺山 乾元菩提寺에서 이 密經을 寫勘하고 그 祕義를 서술했다. 經을 번역하고 쓴 自序⁵⁾도 이때의 작이다. 慧超는 당나라에 거의 54년간 거주하였다.”하였다.⁶⁾ 1926년 羽田亨선생과 伯希和선생은 〈敦煌遺書〉를 合編하면서 이 傳本을 影印 출판하여 學術界에 편의를 제공했다. 1931년 錢稻孫선생은 藤田豐八선생의 箋釋을 中文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⁷⁾ 1934년 大谷勝眞선생은 ‘慧超往五天竺國傳中の一二に就いて’⁸⁾라는 論문을 통하여 羅振玉선생의 刪節本說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1938년 독일의 東方學者 福克司(Walter Fuchs)선생은 이 傳本을 새로 정리하고 獨語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⁹⁾ 王重民선생은 그의 〈敦煌古籍敘錄〉에 傳本을 넣어 다시

3) 〈敦煌石室遺書〉는 淸 宣統元年(1909) 誦芬室刊이다. 이후에 羅振玉선생이 〈國學叢刊〉(第三期)와〈雪堂叢刻〉(1915)에 편집해 넣었다.

4) 唐貞元 16년(800)以前的 圓照集錄. 원명은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 〈大正新修大藏經〉第五十二卷史傳部四에 掲載되어있다.

5) 千臂千鉢大敎王經은 大正新修大藏經第十九卷密部二에 있다.

6) 高南順次郎一篇文章 ‘慧超往五天竺國傳に就いて’〈宗教界〉第十一卷 第七號. p.535.

7)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藤田豐八著 錢稻孫譯. 北平文奎堂版(1931)

8) 〈小田先生頌壽記念 朝鮮論集〉1934. 서울.

9) Walter Fuchs “Huei-ch’ao’s Pilgerreise durch nordwest-Indien und

소개하며 추천하였다. 1941년 羽田亨선생은 다시 각종 校勘 翻譯本을 참고하여 '慧超往五天竺國傳彙錄'을 발표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가장 참고할 만한 문장이 다.¹⁰⁾ 1959년 韓國학자 高炳翊선생은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史略'을 발표하였다.¹¹⁾ 1964년 북한의 鄭烈模선생은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또 한국의 梁翰承선생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冉雲華선생과 공동으로 英譯하여 캐나다 溫哥華에서 合編하였다. 1975년 冉雲華(Jan Yunhua)선생은 '慧超往五天竺國傳中天竺國新箋考'라는 문장을 香港敦煌學會에서 편집하는 <敦煌學> 第二集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주로 印度역사의 考證에 중점을 두어 傳本의 역사연구 가치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1992년 일본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에서 桑山正道 선생이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를 발표하였고, 1994년 中國 四川省 社科院 歷史研究所 張毅 선생이 <往五天竺國傳箋釋>한 권을 출판하였다. 1995년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에서 그리고 1996년 北京大學出版部에서 王邦維 선생이 최근 새로 나온 위 두 권의 서평을 발표하였다. 1999년 2월 우리나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혜초 스님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二. 研究心得

(一). 上中下 三卷인가 一卷인가?

羅振玉선생은 '慧超往五天竺國傳殘卷'의 끝 부분에서 '…慧琳이 보았던 것은 三卷本인데 이것은 一卷本이니 아마 三卷本을 刪節하여 이룬 것으로…'¹²⁾라고 이 殘缺本은 원래 三卷本이었던 것을 刪節한 刪節本이라고 斷定하였다.

Zentral Asien un 726" Sitzungsberichte der preussischen Akad. d. Wissenschaften, phil.-hist. klasse. 1938. xxx.s.426-469

1939년 別冊출판(Sonderausgabe). 正誤表는 Monumenta serica IV, 1, 1939. p.382.에 있다.

10) <紀元二千六百年記念史學論文集> p.427-446 京都 1941

11)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教學論文集>掲載. 이후 <東亞交涉史研究>에도 발표. 서울대 학술관부.

12) …慧琳所見三卷本, 此爲一卷本, 殆即刪節三卷本爲之…

그 뒤로 모든 학자들이 이 가설에 따르며 異論을 提起하지 않았다. 오직 大谷勝眞선생이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一切經音義>의 中卷과 下卷중의 語彙가 이 傳本과 符合하며 실제로 이 傳本은 앞부분이 缺落 되었을 뿐 나누어지지 않은 寫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 傳本에는 五言詩 다섯 首가 들어 있는데 만약 刪節本 이라면 먼저 이런 시들을 먼저 刪節하였으리라 하였다. 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으나 <一切經音義>에는 분명히 上中下 三卷으로 나누어 두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明確한 論證이 필요할 것 같다.

慧琳의 <一切經音義> 卷一百 惠超往五天竺國傳에는 第七張에서 第十三張까지 모두 85개 단어의 音과 義釋이 있는데 上·中·下卷으로 나누어 두었다. 上卷에는 39개, 中卷에는 18개, 下卷에는 28개의 語彙와 해석이 있다. 이 해석 중에서 惠超往五天竺國傳을 직접 가리키는 '傳文' 혹은 '傳中'이라는 지칭이 上卷에 세 번, 下卷에 세 번 나온다. 어휘 해석 중에서 傳本과 꼭 맞는 어휘는 17개가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겠다.

1. 裸形國: 魯國反赤體無衣曰裸或從人作僕亦從身作裸今避俗諱音胡互反上聲

傳本의 제1행은 비록 잘려져 나갔지만……寶赤足裸形外道不著衣…… 등의 글로 보아 裸形國에서 보고들은 견문기록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波羅痾斯: 痾音倅黠反梵語也文中從日作呢非之也.

傳本의 제10행에 波羅痾斯가 있는데 아마 같은 나라 이름인 듯하다. 그러나 波가 아니고 彼인 것에 관해서는 冉雲華선생의 상기 논문에 자세히 연구, 해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곳은 <一切經音義>해석에서 '文中從日作呢'부분이다. 분명히 傳本에는 痾로 쓰여 해석을 다 하였으면서 다시 '文中從日作呢非也' 하였으니 여기서의 文은 무엇일까?

3. 土塢: 古禾反土釜是也

傳本의 제28행에 …土鍋煮飯而食無鐵釜等也… 無鐵釜 라는 문장 뜻으로 보아 鍋자는 慧琳이 해석한 埵자를 이 傳本을 베껴 쓰는 사람이 잘못 쓴 것이 분명하다.

4. 婆簸慈: 波箇反胡語也

傳本의 제103행에 娑播慈國이 있는데 글의 순서로 보아 같은 이름인 듯하나 簸, 播는 동음어이기는 하지만 표기가 다르고 娑자는 婆자를 잘못 쓴 듯하다. 이 語彙를 보아 慧琳은 이 傳本과는 다른 卷子를 依據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犛牛: 兜包反長毛牛也傳作猫兒字非也.

傳本의 107행 끝 부분에 확실히 猫牛라고 쓰여 있다. 이 부분의 해석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一切經音義>에서 말하는 傳은 분명히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이라는 것이다 '傳作猫兒字非也'하면서 틀리게 썼다며 교정해 놓았다. 그러나 혜초 스님은 일록소라는 뜻으로 猫牛라 표현한 듯하다.

6. 牙嚙蟻蝨: 上研結反蟻音几蝨音瑟傳文俗字相傳作風不成字也.

傳本의 제111행에 蟻虱이 있고 慧琳은 俗字라고 해석하였다.<龍龕手鏡>의 上聲 虫部 入聲條에 보면 '蝨正音瑟蟻蝨也. 有五俗虱. 虱. 虱. 虫虱. 虫瑟'라 하였다. 傳本에 나오는 虱자는 俗字임이 확실하다. 그러면 慧琳이 뒷부분에 한 해석은 무엇을 말하는가? 치아로 이를 잡아 깨물어 먹는 부분의 묘사에서 牙嚙蟻蝨라고 正字를 써서 解釋하고, 傳本文의 虱은 俗字임도 밝히고 그리고 또 相傳作風不成字也의 相傳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하다.

7. 餒五夜叉: 萎僞反聲同畏與食也

傳本の 第130行 끝에 捨頭捨眼餽五夜叉가 있다.

8. 謝風：雲鬱反胡語也或云謝越國屬吐火羅界

傳本の 제147행에 謝風國이 있다.

9. 氈裝：上章然反下音壯以氈爲衫也

傳本の 제152행에 氈衫이 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온다. 慧琳은 傳本 중의 氈衫으로 氈裝을 해석한 듯하다.

10. 匙箸：上音時飯匕也下除慮反古今正字從竹從著省聲也傳文中從助作筋非正俗字也

傳本の 제171행에 과연 匙筋라고 써어있다.

11. 胡箴：眼鼈反胡語也.

傳本の 제193행에 胡蜜이 있다. 箴. 蜜은 동일 入聲字로 아마 같은 국명인데 다르게 쓴 듯하다.

12. 播蔑：上波箇反地名也.

傳本 제197행의 五言詩 끝에 播蜜이 있다. 여기서도 蔑 대신 蜜을 쓴 것이 11번과 같은 이치다. Pamir의 발음이 蔑보다 蜜이 더욱 비슷한 것 같은데 傳本과는 다르게 慧琳은 蔑을 쓴 것은 더욱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13. 峭嶷: 上千笑反下宜棘反山高險峻.

傳本 제195행 五言詩에 鳥飛驚峭嶷가 있다. 詩語이니 傳本에만 나오는 단어라 모양이 꼭 같다.

14. 擘地裂: 上音百

傳本 제196행 五言詩에 寒風擘地裂이 있다. 역시 詩語라서 傳本의 단어 모습 그대로이다.

15. 瀑布: 上音僕懸流水也.

傳本 제197행 五言詩에 瀑布라고 쓰여있다. 敦煌卷子 俗寫 習慣上 字形無定. 偏旁無定한 경우가 많이 있다.¹³⁾ 이 傳本을 描寫한 사람이 火變으로 바뀌 쓴 듯하다. 13.14.15는 詩語이니 <一切經音義>에서도 연달아 해석하였다.

16. 迦師佉黎: 佉勤 ㄸ反胡語唐云葱嶺鎮.

傳本 제211행에 …又從葱嶺步入一月至疎勒外國自呼名伽師祇離國… 이라 하였는데, 同一名인 듯하나 慧超는 비교적 상세히 적었다. 羅振玉先生은 注3의 책 p.133에서 ‘疎勒은 외국인인 伽師祇離國으로 부른다는 것을 唐書의 疎勒傳을 보면 옳은 것이 증명된다. 慧琳은 音義에서 迦師佉黎卽葱嶺이라고 함은 틀렸다.’¹⁴⁾ 하였다.

13) 敦煌卷子俗寫文字與俗文學之研究 潘重規 中央研究院國際漢學會論文集 中華民國七十年 p.2.

14) ‘疎勒外國人呼伽師祇離國證以唐書疎勒傳足正慧琳音義伽師佉黎卽葱嶺之非’

17. 明憚: 威粉反僧名.

傳本 제220행에 …大雲寺上座名明憚…이 있다.

이상의 17개 단어는 〈一切經音義〉中. 下卷의 해석부분과 앞부분이 떨어져 나간 이 傳本과 符合되는 곳이다.

한 가지 주의를 끄는 곳은〈一切經音義〉下卷의 여섯 번째 단어 手磋의 音釋이 있는데,

手磋: 倉何反或從手作搓二手相摩也傳中從足作蹉是蹉陶字非此用

이라 되어있다. 분명히 '傳中從足作蹉'라고 慧琳이 의거한 惠超往五天竺國傳卷子에는 있는 단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傳本에는 나오지 않으니 이 傳本은 刪節本임을 확실히 규명해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p.3532 본은 羅振玉선생이 말한 刪節本임을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

또 2와 3의 예로 보아 慧琳이 의거한 卷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殘寫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3.4.15의 경우는 이 傳本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校勘 몇 가지.

최근 1994년 中華書局에서 출판한 張毅 先生著〈往五天竺國傳箋釋〉은 (이후 略稱 箋釋) 여러 史籍과 論文을 引用하여 中外歷史. 地理. 佛教. 風俗. 言語 各 方面에 精深考證하였다. 〈中外交通史籍叢刊〉의 한 종류로 學術界에 이바지한 貢獻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敦煌卷子 俗寫習慣에 익숙하지 못하여 생기는 조그만 오해들이 있고, 반세기를 지나면서 海內外 학자들이 상세히 잘 보지 못한 부분을 그대로 踏襲한 곳, 또 原文 해석에서도 몇 가지 誤謬가 있는 것 같아 필자는 淺陋한 지식으로나마 몇 가지 校勘을 시도한다.

1. 箋釋 10쪽의 …彼幢極鹿,五人合抱…부분에서 장씨는 鹿即麗라며 舊說을 踏襲했다. 傳本 제12행의 鹿字는 麤를 간략히 쓴 俗字다. 즉 기둥이 굵어 다섯 사람이 팔 벌려 안을 수 있을 정도라는 뜻이다.

2. 箋釋 14쪽의 …等卅餘. 步此城…에서 張씨는 “ 等卅餘, 原件‘等’脫上半, 誤爲‘寸’이라 箋釋했다.

按: 傳本 제16행에는 …輻團圓正寸卅餘步此城…이라며 분명히 ‘寸’자로 쓰여져 있고 上半部가 떨어져나간 痕迹은 없다.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확실한 해석은 어려우나 필자는 寸자를 動詞로 보아 團圓이 三十餘步로 재었다 라는 뜻으로 본다. 傳本 제54행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四面方圓三百餘步 라며 步幅의 수로 樓閣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3. 敦煌卷子는 당시 俗寫習慣상 順序를 바꿔 쓴 글자 옆에는 √부호로 표시하였다.(乙倒符) 卷子を 읽을 때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箋釋은 이 부호를 參考하지 않아 일어난 오해가 많다. 즉 傳本의

제 19행 難誠√

제 23행 天中√

제 48행 僧有√

제 52행 領首√

제 93행 千一√

제122행 漢多√

제148행 此於√

제167행 住不√

제170행 人女√

등은 마땅히 두 글자를 바꿔 읽어야 한다.¹⁵⁾ 그리고 제147행의 至七√日√부

15) 注13)과 동일 p.6.

분은 七日至로 읽어야 한다. 또 제161행의 大"寔"과 제168행의 彼"國" 부분은 응당 大寔大寔, 彼國彼國으로 읽어야 하나 箋釋에서는 重字符조차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

4. 箋釋 28쪽 …但抽田子一石與王… 부분을 傳本 제29행과 비교하면 ‘一’자 앞에 ‘五’자가 빠졌다. 즉 세금은 없으나 밭농사의 오분의 일을 왕에게 바친다는 뜻이다.

5. 箋釋 29쪽 …著氈一隻. 自一雙…에서 隻과 雙의 위치가 바뀌었다. 부유한 자들은 한 쌍의 담요를 가졌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한 개뿐이라는 뜻인 것 같다.

6. 箋釋 31쪽 …萬物. 부분에서 張씨는 “‘萬物’之萬, 乃‘等’字之訛.”라 하였는데 傳本 제37행 마지막자는 ‘等’자임에 틀림이 없다. 張씨가 잘못 읽었다.

7. 箋釋 47쪽 五言詩 …月夜瞻鄉路… 부분의 瞻자는 붓이 두 번 간 듯하여 정확히 읽기가 어렵고 鄉자는 傳本の 84행과 그 밖의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鄉과의 寫法이 다르다. 필자는 那로 읽어 瞻那路는 당시 南天竺國에 있던 도로 이름으로 본다.

8. 箋釋 59쪽 五言詩

故里燈無主 他方寶樹摧
 神靈去何處 玉兒已成灰
 億想哀情切 悲君願不隨
 孰知鄉國路 空見白雲歸

여기 切자는 역대 학자들이 切로 읽는데 별 의문을 갖지 않았으나 傳本 제86행에는 下로 되어있어 切자 같지 않다. 傳本에 切자가 다시 나오지 않아 비교할 수 없으나 매우 단정한 楷書로 쓴 이 傳本의 描寫습관에 따라 土. 上. 末변으로 이루어진 글들을 자세히 관찰한 후 필자는 初로 읽고자 한다. 즉 학업을 다 마치고 還鄉하려던 漢僧이 갑자기 違和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初志 未隨한 悲痛함을 哀悼한 詩意에 어울릴 듯하다.

9. 箋釋 68쪽 …白者全希…

傳本 제110행에는 希가 아니라 布로 되어있다. 즉 흰 것은 모두 베를 두른 것이란 뜻이다.

10. 箋釋 92쪽에서 …寺中貝佉螺髻骨舍利… 貝乃有之訛라 하였다.

傳本 제145행을 자세히 보면 구겨진 선 위의 글은 貝가 아니라 사실은 見자이다. 傳本 제137행 覽 아래의 見자와 또 다른 곳에서도 見을 이와 비슷하게 쓴 곳이 있다.

稀貴寫本을 읽으며 草率하게 訛라고 斷定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본다.

11. 箋釋 96쪽 吐火羅國중 둘째 줄 …見今大寔兵馬. 在彼鎮押. 其王被其王被逼. 走向東一月程. 在蒲特山住. 屬大寔所管…에서 張씨는 “‘其王被’, 三字 重疊, 應刪後三字.”라고 箋했다.

按: 住자 뒤에 오는 見자를 읽지 않았다. 띄어읽기에도 차이가 있다. 傳本제 156행의 …見今大寔兵馬在彼鎮押其王被其王被逼走向東一月程在蒲特山住見屬大寔所管…에서 被와 被자가 확실히 다르다. 앞의 것은 被로 보인다. 1985년 中華書局 출판본 <龍龕手鏡>112쪽을 보면 ‘不父: 舊藏作救’로 해석하고 있다. 임금을 숨겼다는 뜻이다. 따라서 띄어 읽자면…見今大寔兵馬, 在彼鎮押其王, 被其王, 被逼走向東一月程, 在蒲特山住. 見屬大寔所管…이다.

12. 箋釋 134쪽 …以蟲爲食…부분은

傳本 제191행에서 찾아보면 蟲자를 고쳐 쓴 듯, 虫 같아 보이기도하고 ‘ㄱ’ 아래에 六을 넣은 자 같기도 하다. 𪛗은 肉의 俗字이니 글 내용으로 보아 ‘고기를 먹는다’가 더 나올 것 같다.

13. 箋釋 140쪽 五言詩 …人去偏樛?…부분에서 張씨는 “人去偏樛句後原奪一字, 不詳.”하고 箋하였다.

按: 傳本 제 195행에서 樛자 아래 오른쪽으로 ‘非’ 자가 있다. 五言絶句이니 분명히 非를 넣어 읽어야 하는데 필자는 樛앞에 넣어 人去偏非樛으로 읽어야 전체 시의 長. 倡. 樛. 行이 叶韻이 된다고 본다.

14. 箋釋 176쪽 …大雲寺都維那名義招…

唐代 佛教 儀式을 행할 때 여러 스님들이 擔當하는 角色이 모두 달랐다. 說法을 하는 분. 講唱을 하는 분. 經을 解讀하는 분 등 專門을 나누어 擔當했는데, 道維那是 儀式을 진행하는 스님을 부르는 代名詞다. 이 부분의 해석에서 張씨는 너무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이상 간단한 校勘의 시도는 기와조각을 던져 옥을 구하려는 욕심에서였다. 희망하기를, 우리 한국 학자들이 이 傳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인류 역사상 드문 稀貴 孤寫本을 깊이 연구하여, 아시아의 역사 지리 종교 각 분야에서 學術價値를 發揮하고, 또 傳本의 完譯과 더욱 자세한 慧超스님의 연구를 통하여 훌륭한 조상들의 발자국을 밝히며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더하였으면 한다.

III. 결 론

〈一切經音義〉卷一百, 惠超往五天竺國傳 상중하권의 하권에서 여섯 번째 나오는 어휘 '手蹉'의 音釋중 '傳中從足作蹉是蹉陶字非此用'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傳本에는 '手蹉'가 나오지 않으니 刪節本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 2.3.4.11.12.15.16의 예로 이 傳本은 慧琳이 의거하였던 卷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大谷勝進선생이 주장한 '寫錄本說'은 성립하기 어렵다. 또 위의 2土鍋. 4娑播慈國. 15瀑布 등의 예에서는 이 傳本을 베껴 쓴 사람이 실수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또 베끼다가 순서가 바뀌어 V(乙倒符)표시한 곳이 여덟 군데나 있고, 심지어 '女人'을 '人女V'라고 까지 하였으며 創作詩句마저 틀리게 쓴 이 傳本을 두고 '草稿本' 운운함은 설득력이 없다. 高田時雄선생의 "文法상 行文상 不自然스런 부분은 외국인 혜초의 草稿本이기 때문"16)이라는 의견은 정말 牽強附會하며 당시 金剛智의 대 제자 惠超의 학문적 수준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오히려 베껴 쓰는 사람이 刪節하면서 일어난 결과로 본다. 〈一切經音義〉상의 어휘들이 이 傳本과 꼭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좀 더 비교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필자는 5.犍牛의 경우를 보아 혜초는 얼룩소를 猫兒라고 표현한 듯 하나 慧琳은 자기의 識見에 따라 長毛牛라 音義釋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2의 波와 彼の 비교연구로 冉雲華선생의 보고가 있고, 예16의 迦師佉黎와 伽師祇離의 정확성 비교 역시 주14)와 같이 증명되었다. 필자는 Pamir지명을 표현할 때 〈一切經音義〉의 播蔑보다 傳本の 播蜜이 원음에 가깝다고 본다. 전문학자들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너무나도 稀貴한 孤寫本을 앞에 두고 연구하면서 너무 성급한 속단은 그 누구도 삼가야 할 것으로 본다.

16)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研究報告 중 "慧超往五天竺國傳の言語と敦煌寫本の性格"에서.

參考文獻以及論文

- | | | |
|------------------------|-----------|-------------------------|
| 敦煌寶藏 | 伯三五三二 | 敦煌寫本 |
| 龍龕手鏡 | 遼.釋.行均編 | 中華書局 |
| 一切經音義 | 釋 慧琳 | 高麗大藏經本 |
| 大日本佛教全書 | 遊方傳叢書 | p.1-60. 61-82. |
| 大正新修大藏經 | 第51卷 | p.975-979 |
| 敦煌石室遺書 | 羅振玉 | 雪堂叢刻 第一冊 |
| 敦煌古籍敘錄 | 王重民 | 商務印書館 p.267-268 |
| 敦煌遺書 | 伯希和.羽田亨 | 京都 影印本 1926年 |
| 敦煌學 | 第二集 第六集 | 敦煌學會編印 |
| 表制集 | 卷 四.五.六 | 大藏經本 No.二一二〇 |
| 全唐文 | 卷九一六 |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攀千鉢大教王經序' |
| 敦煌卷子俗寫文字與俗文學之研究 | 潘重規 | 中央研究院國際漢學會論文集 |
| 往五天竺國傳箋釋 | 張毅 | 北京 中華書局 1994年 |
| 世界情神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慧超'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1999년 |

혜초 왕오천축국전 국역

1. 맨발에 벌거벗은 채 밖에서도¹⁾ 옷을 입지 않는다.
2. 음식이 있으면 바로 먹고 齋하지 않는다. 땅은 모두 평평하며
3. 노비가 없고 사람을 파는 죄와 살인죄는 다름 바 없이
4. 한 달지나 구시나국에 도착했다. 불이 열반 드신 곳 성은 황폐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불이 열반 드신 곳에 탑을 세워두었다.
5. 선사가 그곳을 깨끗이 쓸고 있었다. 해마다 8월 8일이면 승려 니구 속인이 그곳에서 큰 공양을 벌인다. 그 공중에
6. 번이 나부끼는데 수를 다 못 셀 지경이다. 모두 함께 보았으나 이 날의 발심은 하나가 아니다. 이 탑 서쪽에 강이 있는데 이라발저
7. 물이 남쪽 이 천리 밖으로 흘러 항하로 깃든다. 그 탑의 사방은 단절되고 사람이 살지 않아 극히 황폐하였다. 그곳을 지나는 예배자 들은
8. 물소나 범의 해를 입는다. 이 탑 동남쪽 삼 십리에 절이 있는데 이름이 사반단사다. 삼십여 촌장 서너 군데
9. 언제나 공양했는데 그 선사의 의식을 지금은 탑에서 공양하여
10. 피라니사국에 도착했다. 이 나라 역시 망하여 왕이 없고
11. 그 오구륜 형상이 탑 중에 있어
12. 위에 사자가 있고 그 장은 너무나 커서 다섯 사람이 함께 안을 정도다. 무늬가 기늘고
13. 탑 때에 이 장도 함께 세웠다. 절 이름은 달마연갈라. 스님이
14. 밖에 옷을 걸치지 않고 몸에는 회를 바르며 대왕을 섬긴다. 이 절에 금동상이 하나 있는데 오백
15. 마갈타국이다. 옛날 시라표저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상을 지었다. 또 이

1) 혜초스님기념학술세미나자료집의 왕오천축국전 번역문(이후 번역문으로 약칭)에서 정병삼 선생은 '외도(外道)라 옷을 입지 않는다.' 라고 번역하였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외도라 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의 外道란 室內가 아닌 밖이란 뜻이다. 14행에도 나온다.

동상도 지었는데

16. 부단원이 바로 삼십 여 보로 재고 있었다. 이 성은 항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즉 이 녹야원 구시나
17. 사성 마하보제등 사대 영탑이 마갈타국왕계에 있다. 이 나라는 대소승이 함께 행해지며
18. 마하보제사에 도착할 수 있어 본원을 빌고 나니 너무나 기뻐 이 어리석은 뜻을 간단히 풀어본다. 오언
19. 보제가 멀다고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찌 녹야원이 아득하다 하리오. 오직 길이 험한 것 걱정하였으나, 업이 바람에 날려 가는 뜻은 아니었네. 팔탑은 정말 뵈기 힘든 것,
20. 향 피우고 경전 더하네. 어찌 사람 원이 채워져, 오늘에야 눈으로 보았나. 또 여기 피라니사국
21. 월에 중천축국에 도착했다. 국왕이 사는 성의 이름은 갈나급. 여기서부터 중천왕 경계다. 아주 넓고 백성도 많아 변화하다.
22. 왕은 구백마리 코끼리가 있고 나머지 큰 수령들은 각 이삼백 마리를 가졌다. 그 왕은 병마를 이끌고 전투를 한다. 자주 나머지 네
23. 나라와 전쟁을 한다. 중천왕이 언제나 이긴다. 그 나라들은 코끼리도 병도 적은 것을 알고 화해를 청한다. 해마다 세를 바치고 서로 진을 치지 않고
24. 죽이지 않는다. 의류 언어 풍속 법 등이 오천국 모두 비슷하다. 오직 남천촌의 백성들 말이 좀 차이가 난다. 받들기를
25. 등의 종류. 중천도 다르지 않다. 오천국 법은 고리를 채우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돈으로 물게 한다. 역시
26. 형륙도 없다. 위로 국왕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독수리와 개를 풀어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도로에서 비록 도둑이 많으나
27. 물건만 취하고는 놓아주며 살상을 하지 않는다. 만약 물건을 아끼면 손상

- 을 입는다. 토지가 따뜻하고 백가지 풀이 항상 푸르며 서리 눈은 없다.
28. 쌀 곡식 차조가루로 만든 병과 유제품 등을 먹는다. 장은 없고 소금이 있다. 모두 흙으로 만든 술로 밥을 지어먹으며
29. 쇠술 등은 없다 백성은 세금 노역이 없으며 오직 밭농사의 오분의 일 석을 왕에게 바친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운반해 오며 농사 주인이
30. 운송해 바치지 않는다. 그곳 백성은 가난한 이가 많고 부자는 적으며 왕궁이나 집에서 그리고 부유한 자는 모직물 한 쌍을 두르고
31. 한 쪽 가난한 이는 반 쪽 여자 역시 그러하다. 그 왕이 관치에 앉으면 수령 백성이 모두 와서 왕을 에워싸 사방에 앉는다. 각기
32. 쟁론을 벌이고 소송이 분분하여 아주 시끌벅적 하였다. 왕은 듣고 성내지 않고 천천히 대답하길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그 백성
33. 들은 왕의 한마디로 정해지며 다시 더 말이 없다. 왕과 수령들은 삼보를 아주 공경하고 믿으며 만약 스승
34. 스님 앞이라면 왕과 수령은 땅에 앉으며 상에 앉지 않으려 한다. 왕과 수령이 다닐 때에는 스스로
35. 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도착한 곳에 바로 앉고 다른 상에는 앉지 않는다. 절이나 왕의 집은 모두 삼층으로 짓는다. 아래 제
36. 일층은 창고로 짓고 위 두 층에는 사람이 산다. 여러 수령들도 모두 그러하다 집은 모두 납작하며 벽들과 나무로 지었다. 그밖에
37. 모두 초옥으로 중국가옥의 아래 두 층처럼 지었고 또 한 층이 있다. 토지 생산으로는 오직 모직물 코끼리 말 등이 나오고
38. 금은은 나오지 않아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다. 낙타 나귀 돼지 등을 기르지 않고 기르는 소는 모두 회고
39. 만 마리 중에 드물게 한 마리 정도는 적흑색이다. 양, 말도 아주 적고 오직 왕만 이 삼백 마리 육 칠십 필 그 외
40. 수령 백성들은 가축을 기르지 않고 소만 즐겨 길러 유제품 버터 치즈를 취한다. 사람들이 선량하고 살생을 좋아하지 않는다.

41. 시중 상점에서 도살하여 고기 파는 곳을 보지 못했다. 이 중천국에는 대승 소승 모두 믿으며 바로 이 중천계 내에 사
42. 대탑이 있다. 향하 북쪽 안으로 삼대 탑이 있는데 첫째 사위국의 금고원에 절과 스님이 있음을 보았다. 둘째 비나
43. 리성 암라원에 탑이 있었는데 그 절은 황폐하여 스님이 없었다. 셋째 가비나라국 즉 불이 본래
44. 태어난 성으로 근심 없는 나무를 보았다. 이 성은 이미 폐하여 탑은 있으나 스님은 없었고 백성 역시 없었다. 최고 북쪽 임목은 황폐한 것이
45. 많았고 길에는 도적이 많았다. 그곳에 예배드리는 자는 방향을 잃기 쉬웠다. 넷째 삼도 보계탑은 중천왕이 사는 성에 있고
46. 서쪽으로 칠일 가니 두 향하 사이에 있었다. 불이 도리천에서 삼도보계로 변하여 염부제에 내려온 곳이다. 왼쪽은
47. 금이고 오른쪽은 은 중간은 유리로 하였다. 불은 중간 길에 있고 범왕은 왼쪽길 석재는 오른쪽계단에서 부처를 모시고 내려 온 곳이 바로 여기며
48. 탑을 세워 두었다. 절도 있고 스님도 있어 중천국에서 남행을 석 달 남짓 하니 남천축국왕이 머무는 곳에 도착했다.
49. 왕은 팔 백 마리 코끼리를 가졌으며 땅이 아주 넓었다. 남으로는 남해까지 동으로는 동해까지 서로는 서해까지 북으로는 중천 서천
50. 동천 등 나라와 접하였다. 의복 음식 풍습이 중천과 비슷하고 오직 말이 조금 달랐다. 땅이 중천보다 더웠고
51. 직물 코끼리 물소 황소 등이 나오고 양도 조금 있다. 낙타 나귀 노새들은 없고 논이 있고
52. 수수 밤 등은 없다. 면이나 견들은 오천국에 모두 없다. 왕 수령 백성 등은 삼보를 지극히 공경하고 절이 많고
53. 스님도 많으며 대 소승이 그곳에서 함께 통한다. 산 속에 큰절이 하나 있는데 용수보살이 야차신을 만든 곳이다. 사람이 이룬 것이
54. 아니고 산을 뚫어 기둥으로 하여 삼층 집을 지었다. 사면이 약 삼 백여보

가 되며 용수가 계실 때에는 절에 삼 천명 정도의

55. 스님이 있어 공양만 해도 십 오석 쌀이 들었고 매일 삼 천명의 스님을 공양해도 그 쌀이 없어지지 않았다. 취하면 다시 도로 생기니 원래에서 감소하지 않았다.
56. 그러나 지금은 이 절이 폐하여 스님도 없다. 용수가 칠 백년 수를 하고 망하기 시작했다. 여기 남천로에서 한 마디 하다.
57. 오연 달밤의 침나로, 뜬구름만 살랑 돌아가네. 편지 적어 부쳐 보고프나, 바람은 급하여 돌아보지 않네. 내 나라는 북쪽하늘에 있고,
58. 난 타향의 서쪽 가장자리에서. 남쪽 땅에는 기러기도 없어라, 누가 향림으로 날겠는가.
59. 남천국에서 또 북행을 두 달쯤 하니 서천국 국왕이 사는 성에 도착했다. 이 서천국왕 역시 오륙백 마리 코끼리가 있었고 토산품으로 모직물과
60. 은 코끼리 말 양 소등이 많으며 대맥 소맥 콩 등이 있다. 쌀 곡식은 적고 가루 병
61. 치즈 버터 류를 많이 먹는다. 시장에서 은전으로 직물 등을 산다. 왕과 수령 백성들은 삼보를 지극히 공경하고
62. 절과 스님이 많고 대승 소승이 함께 통한다. 땅이 아주 넓고 서쪽은 서해에 이른다 백성들은 노래부르기를 좋아하고 나머지 사천국은
63. 이 나라만 못하다 또 갈고리 감옥 살륙 등의 형벌이 없다. 지금 보니 대식국이 침입하여 나라의 반이 손실되었다. 또 오천
64. 법은 외출하는 자는 양식을 들고 다니지 않고 도착한 곳에서 구걸하여 먹는다. 오직 왕과 수령 등은 외출할 때 스스로
65. 양식을 가지고 다니며 백성들의 곡식을 먹지 않는다. 또 서천국에서 북쪽으로 석 달쯤 가니 북천국이다. 이름이 투
66. 란달라국이다 왕은 삼백 마리 코끼리를 가지고 있고 산에 의지하여 성을 지어 산다. 이 나라 북쪽으로는 점점 산이 많아지고 나라들은
67. 작고 좁다 병마는 많지 않고 중천국과 가엽미라국에 여러번 침범되어 먹

- 했다. 따라서 산에 기대어 산다 풍습과
68. 의복 언어 등은 모두 중천국과 다르지 않다. 날씨는 중천국보다 좀 춥다.
그러나 서리 눈은 없고 바람이
69. 좀 차다 토산품으로 코끼리 직물 벼 맥이 있고 나귀 노새도 좀 있다. 그
왕은 말이 백 필 있고 수령은 삼 오필 백성은
70. 모두 없다 서쪽은 평평하고 하천이 있고 동쪽은 설산에 가까웠다. 나라
안에 절과 스님이 많으며 대승 소승이 함께 성행한다. 또 한달 간 설산을
71. 지나니 동쪽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소발나구항라이다. 토번국에
속하며 관리된다. 입은 옷은 북천국과 비슷하고 말씨는
72. 다르다 기후가 몹시 춥다. 또 이 투란달라국에서 서행하니 한달 쯤 지나
사탁국²⁾에 도착했다. 말씨가
73. 조금 다르나 대부분은 비슷하다. 의복 풍습 토산품 절기의 추위 더위 등
이 북천국과 비슷하고 역시 절과 스님이 많다.
74. 대승 소승이 모두 성행한다. 왕과 수령 백성모두 삼보를 아주 경신한다.
또 이 탁국에서 서행하여 한 달쯤 가니 신두고라국에
75. 도착했다. 의복 풍습 계절 기후가 북천국과 비슷하고 말이 조금 다르다.
이 나라에는 낙타가 아주 많아 백성들은 여기서 젖과
76. 치즈를 얻어먹는다. 왕과 수령 백성 모두 삼보를 경신하며 절 스님이 많
다. 순정이론 중현론을 지은 스승은
77. 바로 이 나라 사람이다. 대승 소승을 함께 믿으며 지금은 대식국의 침입
으로 나라의 반이 손실된 것을 보았다. 이 나라와 오천국 인은
78.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천국을 다녀봐도 취한 사람이나 서로 싸우
는 것을 본적이 없다. 마신다해도 색이나 힘을 구할 뿐
79. 가무극이나 향연을 벌이는 것은 본적이 없다. 또 북천국에서 한 절이 있
는데 이름이 다마삼

2) 번역문에서 탁살국이라 하였으나 傳本 옆에 乙倒符가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또 탁
국이라고 다시 나오니 사탁국으로 읽어야 한다.

80. 마나 불이 살아 계실 적에 여기서 설법하시어 널리 인간을 구도 하신 곳이다 .이 절의 동쪽 사이 샘물 가에 탑이 있는데 바로
81. 불이 머리 깎고 손톱 자른 곳이다. 이 탑 속에 있다. 여기 삼백여 스님이 보인다 절에 화벽지불치아와
82. 뼈 사리등이 있다. 절이 일곱 여덟 곳 더 있는데 각기 오 육 백명의 사람이 있고 주지를 아주 잘 따르며³⁾ 왕과 백성모두 아주 경신한다.
83. 또 산 속에 있는 한 절 이름이 나갈라태나이며 당나라 스님이 있었는데 이 절에서 별세 하셨다. 그 대덕의 말에 의하면 중천에서와 명
84. 한삼장 성교를 받들어 환향 하려다 갑자기 작고하시어 위화 하셨단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상심한지 사
85. 운을 지어 명복 비는 슬픔 전한다. 오언 옛 마을 등 주인 없고, 객지에서 보수 두드리던 그 신령은 어디 가고, 옥모는 재가 되셨소.
86. 처음 의향 생각하면, 소원 따르지 않음이 비통할 뿐이요. 누가 고향 길 아는가, 빈 하늘 흰 구름만 돌아가는 듯.
87. 또 여기서 북쪽으로 보름정도 산으로 가니 가라국에 도착했다. 이 가미라 역시 북천과 비교하면 이 나라가 좀 크다 왕은 삼백
88. 마리 코끼리가 있고 산 속에 산다. 길이 험하여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는다. 백성이 아주 많으며 가난한 이가 많고 부자가 적다. 왕과 수령
89. 여러 부자들이 입은 것은 중천과 다름없다. 그 외 백성은 모두 모 담요를 두른 모습이 흉하다. 토산품으로 동 철 모직물
90. 담요 소와 양이 있고 코끼리 말 벼 포도 류도 좀 있다. 기후가 추운 것이 이전의 여러 나라와는 다르다. 가을에 서리 내리고
91. 겨울에 눈오며 여름에는 비가 많아 백가지 풀이 늘 푸르다. 앞 지는 겨울이면 모두 시들고 하천 계곡이 좁아진다. 남북으로 닷새 동서로 하루 여정 이면

3) 傳本 82행의 大好住持 부분을 번역문에서는 '안주하기를 좋아하며'하였는데 주지라는 명사를 잘못 해석한 듯하다. 뒷부분에도 '주지'는 여러 번 나온다.

92. 땅이 다하고 나머지는 모두 음산 이다. 집은 모두 나무판을 덮었고 풀기
와를 쓰지 않았다. 왕과 수령 백성 등
93. 모두 삼보를 경배한다. 나라에 용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용왕은 매일 일
천 나한승을 공양한다. 비록 아무도 본 적이 없으나 그 스님이
94. 먹는지 제계 하는지 그러나 병 밥들이 물 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보아 아직까지 공양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왕과 대
95. 수령이 외출할 때는 코끼리를 타고 낮은 관리는 말을 타고 백성은 맨발
로 걷는다. 절과 스님이 많고 대승 소승 함께 행한다. 오
96. 천국법은 위로는 국왕 왕비 왕자 아래로 수령과 그 처까지 능력에 따라
각자 절을 지을 수 있다.
97. 각기 따로 짓지 함께 짓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공덕인데 함께 지을 필
요가 있느냐고 말하니 그도 그렇다 나머지 왕자들도 모두 그렇다.
98. 절 짓는 공양만 하면 촌장(땅)을 보시하여 백성들이 삼보를 공양하게 하
며 절만 지어 두고 백성에게 보시 않는 자는 없다.
99. 그 외 국법으로 왕과 비, 후는 각기 다른 촌장 백성이 있고 왕자 수령은
각기 백성이 있어 보시는 자유이며 왕의 뜻과 상관없다. 절 짓기 역시 그
러하다.
100. 짓고 싶으면 짓고 왕에게 묻지 않는다. 왕 역시 감히 말리지 못한다. 죄
받을까 겁나서다. 만약 부유한 백성이 비록 보시할 촌장이 없어도 역시
101. 열심히 절을 지어 자기가 이끌어 간다. 물건을 얻으면 바로 삼보에 공
양 한다. 오천에서는 사람을 팔지 않고 노비가 없으며 꼭 보시해야 하
면4)

4) 번역문은 101행의 要須布施를 '요컨데'로 가볍게 지나갔으나 100행의 若富有百姓雖無村莊布施부터 문맥을 보아 필자는 '백성 중에 부유한 사람은 비록 보시할 촌장(땅)이 없어도 열심히 절을 지어 스스로 꾸러가며 삼보를 공양한다. 오천축국에서는 사람을 팔지 않고 노비가 없으나 만약 보시를 꼭 해야할 때면 백성 촌원(땅)을 한다.'로 해석하고 싶다. 보시를 한 백성은 노비로 보지 않았던 혜초의 관점은 冉雲華선생의 논문에서 가졌던 의문점 「無有奴婢」에 대한 설명도 가능 할 듯하다.

102. 백성 촌원을 한다. 또 가얏미라국에서 동북쪽으로 산을 지나 보름정도 가면 대밭울국 양
103. 동국 사과자국 이 세 나라는 모두 토변에 속해 관리되고 의복 언어 풍습이 모두 다르고 가족으로 된
104. 옷 모직뿔옷 가죽신 바지 등을 입었다. 땅이 좁고 산천이 험하나 역시 절과 스님이 있고 삼보를 경신한다. 만약
105. 동쪽 토변 이라면 절이 없고 불법도 모른다. 이 땅은 호족들 것이라 믿는 것이다.⁵⁾ 동쪽으로 토변국에 오니 바로 얼음산
106. 설산 계곡사이에 천막을 치고 산다. 성곽이나 집도 없이 처소가 마치 돌궐하고 비슷하다.
107. 물과 풀을 따라 그 왕은 비록 한곳에 있으나 역시 성도 없이 천막 등을 치고 산다. 토산물로는 양 얼룩소
108. 담요 털옷 등이 있고 모 털옷 가죽옷을 입고 산다. 여자들도 같다. 기후가 몹시 추워 다른 나라와 다르다. 주로 보리 가루를 먹고
109. 병이나 밥은 적다. 국왕 백성모두 불법을 모른다. 절도 없다. 국민들은 땅을 파고 온돌 같은 것을 만들어
110. 누우며 침대가 없다. 사람들 피부가 아주 검고 흰 것은 베로 두른 것이다. 언어는 딴 나라와 다르며 모두 이를 즐겨 먹는다. 모 털옷을 들렀으니
111. 이들이 다니면 잡아서 입에 던져 넣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또 가얏미라 국서북 쪽 산을 지나 칠일
112. 가면 소밭울국에 도착한다. 여기는 중국 소관이다. 의류 풍속 음식 언어 등이 대밭울국과 비슷하여
113. 털옷 가죽신을 신고 머리 수염은 깎고 머리에는 베를 둘러썼다. 여자는 머리가 있으며 가난한 이가 많고 부자는 적다. 산천이 험소하여

5) 當土是胡所以信也 부분을 번역문에서는 '이곳은 오랑캐 나라로 믿어진다'라고 하였으나 동쪽 토변에는 절도 없고 불법도 모르나 이곳은 호국이라 불법을 믿는다는 뜻이다.

114. 갈 수 있는 밭이 많지 않다. 그 산은 메말라서 원래 수목과 풀이 없다.
그 대밭울은 소밭울왕이 살던
115. 곳에 토번이 쳐들어와 소밭울국에 들어가 살게되었다. 수령과 백성들은
그 대밭울에서 오지 않았다.
116. 또 가엽미라국 서북으로 한달 정도 가니 건타라에 도달했다. 이 왕과
병마는 모두 돌궐이고 원주민은
117. 호족과 바라문들이다. 이 나라에는 옛날 계빈왕이 있었는데 계빈왕이
돌궐왕 아야를 교화하여 그가 부락 한 개와 병마를 데려와
118. 계빈왕에게 투항했다. 그 후 돌궐병력이 왕성해져 그 계빈왕을 살해하
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따라서 국경에는 돌궐이 패왕하며
119. 이 나라 북쪽에 살고 있다. 그 산 역시 메말라 풀이나 나무가 없다. 옷
이나 습관 언어 기후가 모두 다르다. 옷은 가죽옷
120. 털옷 가죽바지 등을 입었다. 땅이 대맥 소맥 짓기에 적당하고 수수 조
벼 등은 없다. 사람들은 보리가루나 병을 많이 먹는다.
121. 가엽미라 대밭 소밭 양동 등의 나라를 제외하고 이 건타라국이나 오천
곤륜 등의 나라에는 포도가 없고
122. 사탕수수^{가6)} 이 돌궐왕은 코끼리가 다섯(?)마리 양과 말은 무수히 많
고 낙타 나귀 노새도 많다. 한나라 땅과 호족
123. 남으로 향하니 도로가 험악하고 도적이 많다. 여기로부터 북서로 업자
가 많고 시장 점포간에
124. 도살이 심하다. 이 왕은 비록 돌궐족이나 삼보를 경신하고 왕 왕비 왕
자 수령등 각자 절을 지어
125. 삼보를 공양한다. 이 왕은 해마다 두 번 무차대재를 여는데 신변에 쓰
이는 모든 물건 처나 코끼리 말 등을
126. 모두 내놓는다. 오직 처와 코끼리는 스님이 값을 매기게 하여 왕이 다

6) 122행의 파손된 부분에 이어 보이는 부분을 고구마로 번역하였으나 甘蔗는 사탕수
수이다. 또127행의 '兒女'는 '자식'이지 '아녀자'가 아니다.

- 시 사들인다. 나머지 낙타 말 금 은 의류 가구 모두 스님 말을 듣고
127. 물건을 팔아 각기 갈라 취한다. 이 왕은 나머지 북돌궐과 다르다. 자녀 역시 각기 절을 지어 재를 열고 보시한다. 이 성은 신두대하의
128. 북쪽에 위치하였다. 이 성 서쪽으로 삼일 정도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천천보살 무착보살이 살던 절이다. 절 이름이 같
129. 약가이며 큰 탑이 하나 있어 언제나 빛을 낸다. 이 절과 탑은 옛날 갈 약가왕이 지었고 절 이름도 왕이 지었다. 이 성 동남으로
130. 리 바로 과거 불이 시비왕을 위해 비둘기를 구한 곳이다. 절과 스님이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불이 오야차에게 머리와 눈을 먹인
131. 곳 역시 이 나라에 있다. 성 동남쪽 산 속에 절과 스님이 있어 공양하는 것을 보았다. 대승 소승 모두 믿는다.
132. 또 이 건타라국에서 정복으로 산에 들어 사흘 가니 오장국에 도착했다. 그들은 울지인나라고 부른다. 이곳 왕은 삼보를 공경하며 백성 촌락을
133. 나누어서 많은 것은 절에 공양하고 적은 것은 자기가 남겨 의식공양에 쓴다 재공양이 날마다 있으며 절과 스님이 충분히 많다. 스님이 속인보다
134. 조금 더 많다. 오직 대승법만 믿는다. 의복 음식 풍습이 건타라국과 비슷하나 말씨는 다르다. 토산품으로 낙타 노새
135. 양 말 모직물이 있으며 날씨는 아주 춥다. 또 오장국에서 동북쪽으로 입산하여 보름일정으로 가니 구위국에 도착했다. 그들은
136. 스스로 사마갈라토국이라 하였다. 왕은 삼보를 경신하고 절과 스님이 있다. 의복 말씨가 오장국과
137. 비슷하다. 털 윗도리 바지를 입고 양과 말이 있다. 또 건타라국에서 서쪽 산으로 들어 칠일 가니 람파국에 도착했다.
138. 이 나라에는 왕이 없고 대 수령만 있어 건타라국에 속하여 관리된다.
139. 절과 스님이 있다. 삼보를 경신하고 대승법을 믿는다. 이 람파국에서 서쪽으로 산에 들어 팔일가면 계
140. 빈국에 도착한다. 이 나라 역시 건타라국 소관이며 왕은 여름이면 계빈

- 에 가서 납양하며 겨울이면 건다라에서 따뜻하게
141. 지낸다. 그곳은 눈도 없고 따뜻하고 춥지 않다. 계빈국은 겨울이면 눈이 쌓여 춥다. 이 나라 원주민은 호족이고 왕과 병사는
142. 돌궐족이다. 의복언어 음식이 토화라국과 대동소이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직물 옷
143. 바지 가죽신을 신어 남녀 차별이 없다. 남자는 머리 수염을 깎고 여자는 머리카락이 있다. 토산품으로 낙타 노새 양 말 나귀 소
144. 모직물 포도 대맥 소맥 튜립⁷⁾등이 있다. 국민이 삼보를 경신하며 절과 스님이 많다. 백성이 집에서 절을 지어
145. 삼보를 공양한다. 큰 성에 절이 있는데 이름이 사계사이다. 절에 불라길 뼈 사리가 있어 보았다. 왕궁에서 백성이 매일 공
146. 양한다. 이 나라는 소송이 성하다. 역시 산에 살며 산머리에 초목이 없어 마치 불에 탄 산 같다. 또 이 계빈국에서 서행을
147. 칠일하여 사울국에 도착했다. 그 스스로는 사호라사타나 라고 부른다. 원주민은 호족이고 왕과 병사는 돌궐족이다. 그
148. 왕은 계빈왕의 조카이며 부락과 병마는 이 나라에 두어 다른 나라에 속하지 않고 역시 숙부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왕과
149. 수령이 비록 돌궐 족이지만 삼보를 극히 공경한다. 절과 스님이 충분히 많으며 대승법이 성하다. 한 큰 돌궐수령이 있는데 이름이 사
150. 택간이다. 매년 한번씩 무수한 금을 내는데 왕보다 더 많다. 의복 풍습 토산품은 계빈왕과 비슷하다 언
151. 어만 구별이 된다. 사울국에서 북쪽으로 칠 일가니 범인국에 도착했다. 이곳 왕은 호족으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병마가 강하고 많아
152. 다른 나라가 감히 침범하지 않는다. 의복은 모직으로 만든 옷 가죽구두 담요 옷 등 입을 입고 토산품으로 양 말 모직물들이 있다. 아주

7) 鬱金香은 튜립꽃을 말한다.

153. 포도가 많으며 눈이 많은 기후로 아주 춥다. 산에 의지하여 살며 왕 수령 백성 모두 삼보를 공경한다. 절과 스님이 많고
154. 대승 소송법이 모두 성하다. 이 나라와 사울국에서는 수염 머리를 자른다. 습관도 계빈국과 비슷하고 다른 점이 많지 않다.
155. 이 나라 언어는 다른 여러 국과 다르다. 이 범인국에서 북행 이십일하니 토화라국에 도착했다. 왕이 사는 성 이름은
156. 부저나이다. 지금 대식국 병마가 그 곳에서 왕을 진압하고 왕을 감추고 억지로 동쪽으로 한 달간 데려가 포
157. 특산에서 산다. 대식국에 속해 관리되는 것을 보았다. 언어는 여러 나라와 다르고 계빈국과는 조금 비슷하긴 하나 다른 점이 더 많다. 옷
158. 은 가죽옷과 모직물을 위로는 왕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죽옷을 상의로 입는다. 토산품은 낙타 노새 양 말
159. 모직물 포도가 있고 병을 즐겨 먹는다. 기후는 몹시 추워 겨울이면 서리 눈이 내린다. 국왕 수령 백성모두 삼보를 공경하고
160. 절과 스님이 많다. 소송법이 성하고 고기 파 부추 등을 먹으며 다른 도는 믿지 않는다. 남자는 수염 머리를 깎고 여자는 머리카락이 있다. 토
161. 지에 산이 많다. 또 토화라국에서 한 달간 서행하니 파사국에 도착했다. 이 왕은 먼저 대식을 관리하였고 대식은 파사왕 낙타 먹이는 곳
162. 인데 배반하여 왕을 죽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 지금은 이 나라가 대식에게 먹혔다. 넓은 모직상의를 입고
163. 수염 머리를 깎았다. 고기 병을 먹으며 쌀이 있으면 갈아 병을 만들어 먹는다. 토산품으로 낙타 노새 양 말 이 있고 키 큰
164. 나귀 모직 보물이 있다. 언어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곳 사람들은 바꾸기를 좋아하며 서해에서 항해하여 남해로 들어
165. 사자국으로 가서 보물을 취해 온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말할 때 보물이 난다고 하였다. 곤륜국에 가서 금을 취하기도 하며 또 중국의
166. 광주까지 와서 비단과 면직류를 취해 가기도 한다. 토산품으로 미세 직

- 물이 있다. 국민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늘을 섬기고 불법을 모른다.
167. 또 파사국에서 열흘 북행하여 산으로 드니 대식국에 이르렀다.
그곳 왕은 본국에 살지 않고 소불임국에 가서 산다.
168. 싸워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 그 나라의 산섬에 머물며 처소가 아주 견고하여 그곳에 산다. 토산물로 낙타 노새 양 말 배 모 담요
169. 보물 역시 있다. 섬세한 모직물 넓은 윗도리를 입고 윗옷 위에 다시 모직물을 덮어 상복으로 한다. 왕과 백성의 의복이 한 종류이고 차별이 없다.
170. 여자 역시 넓은 윗도리를 입고 남자는 머리를 깎고 수염은 모두 두고 여자는 머리를 길렀다. 귀천을 불문하고 공동으로 한 대야에 두어
171. 먹으며 손으로 수저로 먹는 모양이 아주 험했다. 그들이 말하길 손으로 죽여 먹어야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며 백성들이 살생을 즐겨 했다.
172. 하늘을 믿고 불법을 몰랐다. 꿰어얹아 예배드리는 법이 없다. 소불림국 바다 서북쪽이 바로 대불림
173. 국이다. 이 나라 왕은 병마가 많고 강하여 다른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대식국이 여러번 공격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돌궐역시 침입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174. 토산물로 보물이 많고 낙타 노새 양 말 직물 등이 풍부하다. 의복은 파사 대식과 비슷하다. 언
175. 어는 다르다. 대식국에서 동쪽으로는 호국인데 바로 안국 조국 사국 석라
176. 국 미국 강국등 비록 각기 왕이 있으나 대식국에 속하여 관리를 받는다. 나라가 협소하고 병마가 많지 않아 스스로
177. 보호할 수 없다. 토산품으로 낙타 노새 양 말 직물류가 있고 직물윗옷 바지 가죽옷을 입는다. 언어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178. 이 여섯 나라는 모두 화요교를 믿고 불법을 모른다. 오직 강국에 절이 있고 스님도 있으나 공경할 줄은 모른다.

8) 번역문에서는 '살 만한 곳이 아주 드물다' 하였으나 牢로 읽어야 한다.

179. 이 호국에서는 수염 머리를 깎고 모로 된 흰 모자를 즐겨 쓴다. 풍습이 아주 악랄하여 혼인관계가 복잡하다. 어머니와
180. 자매를 처로 맞이한다. 파사국역시 어머니를 처로 받아들인다. 토화라국과 계빈국 범인국 사
181. 룰국등 에서는 형제 열 다섯 셋 둘이 함께 한 사람의 처를 공유한다. 가산을 탕진하지 않기 위해서다.
182. 또 강국에서 동으로 가면 발하나국이다. 두명의 왕이 있고 포우대하가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하남의 왕은
183. 대식에 속하고 하북의 왕은 돌궐에 의해 관리된다. 토산품으로 낙타 노새 양 말 직물류가 있고 가죽옷과 직물옷을 입는다.
184. 병과 보리 가루들을 먹고 말씨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 불법은 모르니 절이나 스님이 없다.
185. 발하나국 동쪽에 있는 나라는 이름이 골출국이다. 이곳 왕은 원래 돌궐 종족이다 백성은 반은 호족이고 반은
186. 돌궐족이다. 토산품으로 낙타 노새 양 말 소 나귀 포도 직물 담요 등이며 직물 가죽 옷을 입는다.
187. 언어는 토화리어 돌궐어 원주민어를 모두 쓰며 왕과 수령 백성모두 삼보를 경신한다. 절과 스님이 있다.
188. 소송법이 성하다. 이 나라는 대식국에 속해 관리된다. 외국에서 비록 나라라 부르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한 개의 주와 비슷한 정도이다 이 곳
189. 남자는 수염 머리를 자르고 여자는 머리가 길다. 이 호국의 북쪽은 북해에 서쪽은 서해에 동쪽은 중국에 이른다.
190. 북쪽은 돌궐이 머문 경계다. 이 돌궐은 불법을 모른다. 절과 스님이 없고 가죽옷과
191. 모직옷을 입으며 고기를 먹는다. 성곽도 없고 사는 곳은 천막을 둘러 집으로 삼는다. 물과 풀이 있는 곳을 거주지로 하며 몸을 움긴다. 남자는
192. 수염 머리를 자르고 여자는 기른다. 언어는 나라와 다르며 국민은 살생

- 을 즐긴다.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 낙타 노새
193. 양 말 등의 토산품이 있다. 또 토화라국에서 동쪽으로 칠일 가면 호밀 왕이 사는 성에 도착한다. 여기 왔더니
194. 중국에서 온 사신이 이 번국에 들었다. 사운을 취하여 읊어본다. 오연 군은 서번이 멀다 탓하고, 나는 동쪽길이 길다. 탄식하네. 길은 험하고
195. 거대한 눈 고개, 그사이 날뛰는 도둑 떼들. 새들도 험한 산봉우리 놀라 달아나고, 사람 길은 치우쳐 산마루가 아니지. 평생 눈물 몰랐더니, 오늘 천 갈래나 흐르네.
196. 겨울날 토화라국에서 눈을 맞아 감회를 읊다. 오연 찬 눈은 얼음과 합치고, 한풍은 땅을 가르려는 듯. 거대한 바다는 한 조각으로 얼어,
197. 강하는 산허리 이를 악문 듯. 용문의 폭포 멋있고, 입구에 뱀 또아리 틀고 있다. 불타는 뱀과 함께, 어떻게 파미르를 넘을까.
198. 이 호밀왕은 병마가 좀 약해 호국을 못하고 대식에 속해 관리된다. 해마다 조세로 비단
199. 삼천 필을 바친다. 산꼭에 살며 거처 지는 아주 좁다. 백성은 가난하고 가죽 직물 옷을 입는다. 왕은 비단을 겹쳐 입었다.
200. 병과 보리가루를 먹으며 다른 나라보다 날씨가 극히 춥다. 말씨도 다르다. 토산품으로 나오는 양 소 는 아주 작고
201. 말 노새들이 있다. 스님과 절이 있고 소송법이 성하다. 왕 수령 백성은 불만 섬기지 다른 도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202. 이 나라에는 다른 교가 없다. 남자들은 모두 수염 머리를 자르고 여자는 머리가 있다. 산 속에 살지만 그 산에는 나무 물 풀 들이 없다.
203. 또 호밀국 북쪽 산 속에 아홉 개의 식닉국이 있는데 아홉 왕이 각기 병마를 거느리고 산다. 한 왕은
204. 호밀왕에 속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 구속되지 않고 자립한다. 최근 두 호밀왕이 중국에 투합하기에 사명이 안
205. 서까지 갔으나 왕래가 끊겼다.⁹⁾ 왕과 수령은 옷을 겹쳐 입거나 가죽옷

- 도 입고 나머지 백성은 가죽 모직옷을 입는다.
206. 날씨가 아주 춥고 설산에 기거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양 말 소 나귀 등이 있고 언어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
207. 그곳 왕은 이 삼백 명을 대파밀천에 보내어 호와 사신을 접탈하는데 주로 명주를 취하여
208. 창고에 쌓아둔다. 씌어 상해도 옷을 해 입을 줄을 모른다. 이 식닉국 등에는 불법이 없다.
209. 호밀국에서 보름동안 동쪽으로 가서 파밀천을 건너니 총령진에 도착했다. 여기는 중국에 속하며 병마가 진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210. 옛날 배성왕 국경인데 왕이 배반하고 토번에 투합했다. 지금은 국경에 백성도 없고 외
211. 국인은 갈반단국이라 부르며 중국명은 총령이다. 또 총령에서 한달 걸어 가니 소록에 도착했다. 외국인은
212. 스스로를 가사저리국이라 부른다. 여기 역시 중국 병마가 주둔한다. 절스님이 있고 소송법이 성하다. 고기와 파
213. 부추등을 먹는다. 원주민은 베를 겹쳐 입는다. 또 소록에서 동쪽으로 한달 가니 자국에 이른다. 바로 안서
214. 대도호부로 중국 병마가 모여있다. 이 구자국에도 절과 스님이 많으며 소송법이 성하다. 고기와 파
215. 부추등을 먹는다. 중국 스님은 대승법을 행한다. 또 안서에서 남으로 가니 우진국 삼천리에 중국 군마가
216. 진압하고 있다. 절과 스님이 많고 대승법이 성하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동쪽은 바로 대 당나라 경계로 누구나 알며

9) 번역문은 '왕래가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으나 傳文은 '往來絶'로 되어있다.

附: 떡은 곡식가루를 찌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며 수분함량이 비교적 높고, 중국에서 말하는 餅은 술에 굽거나 기름으로 지져만든 마른음식 류 이니 쉽게 떡으로 번역하면 당시 식생활습관 이해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빵에 가까울 듯하다

217. 말하지 않아도 흰하다. 개원 십오년 십일월 상순에 안서에 도착했다. 이 때의 절도대사는 조군이다.
218. 이 안서에는 중국스님이 주지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대승법을 행하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대운사 주지 수행은 강설을 잘하며
219. 전에는 장안에 있는 칠보대사의 스님이었다. 대운사 도유나 이름은 의 초이며 율장 해설을 잘한다. 전에는
220. 장안의 장엄사 스님이었다. 대운사의 상좌 이름은 명운이며 업적이 크다. 역시 장안의 승이었다.
221. 이 스님들은 주지를 아주 잘하고 도심도 깊고 공덕이 높다. 용흥사 주 지명은 법해인데 비록 중국인이나
222. 안서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학식이나 인품이 중국인과 다름없다. 우진에 중국 절이 한 곳 있는데 이름이 용흥사다. 중국승 이름이
223. 그 절 주인이며 주지를 잘한다. 그 스님은 하북 기주 인사다 소륙에도 역시 중국 대운사가 있다. 한 중국
224. 승이 주지하는데 민주사람이다. 또 안서에서 동쪽으로 가니 언기국에 도착한다. 중국군 병이
225. 진압하고 있다. 왕과 백성은 호족이고 절과 스님이 많으나 소승법을 행한다. 여기가 바로 안서 사진이며 이름은
226. 일 안서 이 우진 삼 소륙 사 언기
227. 중국 법에 따라 머리하고 옷 입고.